

【답사기】

후란(呼蘭)에서 샤오홍(蕭紅)을 만나다

정겨울*

올여름은 유난히 더운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뉴스에서도 연일 역대 최장 기간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렇게 한창 폭염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한 7월 중순, 여름의 정점에 한창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 연구팀은 예정된 동북 지역 답사길에 올랐다. 4박 5일의 빠듯한 일정 속에서 창춘(長春), 푸순(撫順), 선양(瀋陽), 하얼빈을 두루 다녀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도 앞섰지만, 처음으로 중국 동북 지역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설렘도 컸다. 무엇보다 중국 동북(출신) 작가를 연구했다는 사람이 여태 동북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면 매번 놀림을 받았기에 이번의 답사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특별히 이번 답사는 ‘문학’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일정으로 꾸려졌기에, 중문학을 연구하는 나로서는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마도 작가 샤오홍(蕭紅)의 흔적을 찾아가고 그녀의 기억을 공유하는 순간이었지 않았나 싶다.

하얼빈 시내에서도 대략 한 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가야 도착하는 후란구(呼蘭區). 이곳은 본래 후란현(縣)으로 불리던 곳으로 중국 동북 출신의 여류 작가 샤오홍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으로도 유명하다. 사실상 이곳의 지명이 나에게 더욱 익숙한 이유는 샤오홍의 대표작으로 잘 알려진 소설 『후란허 이야기(呼蘭河傳)』 때문이다. 송화강의 북쪽이자 후란허(呼蘭河) 하류에 위치한 후란현은 샤오홍에게 있어서 유년 시절의 가장 행복하고도 슬픈 기억을 남겨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샤오홍의 문학 창작 전반에 있어서 후란현에 관한 기억과 그곳 사람들의

*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조교수.

이야기는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샤오홍의 작품을 통해 그 이름과 대략적인 풍경만을 가늠할 수 있었던 곳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는 사실에 적잖은 기대감이 생겼다. 이렇게 답사 일정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4일 차, 오전 일정을 끝낸 직후 우리 연구팀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며 샤오홍을 만나기 위해 또다시 버스에 몸을 실었다.

고속도로와 울퉁불퉁한 길을 번갈아 달려 '샤오홍 기념관(蕭紅紀念館)' 앞에 도착했다. 기념관 바로 옆으로는 '샤오홍 고거(蕭紅故居)'라는 팻말이 달린 샤오홍의 옛집이 보존되어 있었다. 샤오홍이 태어나고 자랐던 샤오홍 고거는 1986년부터 성급(省級) 문화재로 지정되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샤오홍 기념관을 둘러본 후, 이어서 샤오홍 고거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뜨거운 바깥 공기를 피하고자 서둘러 들어간 샤오홍 기념관 내부는 그 명칭에 걸맞게 작가 샤오홍의 일생과 창작 전반에 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전시, 소개하고 있었다. 기념관 내부에는 샤오홍의 사진을 비롯해 그녀가 창작했던 작품(출판 서적 등), 관련 회화(삽화) 자료 등이 주로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샤오홍의 어린 시절부터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관람이 시작되는 기념관 1층에는 샤오홍의 어린 시절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작가의 고향인 후란현과 하얼빈 일대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몇몇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샤오홍의 작품 속 주요 무대로도 자주 등장하는 '뒤뜰 화원(後花園)'¹⁾과 1947년 그곳에서 샤오홍의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때는 샤오홍이 사망한 지 이미 5년이 지난 시기였기에 가족사진에서 샤오홍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겨진 가족들만이 샤오홍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마도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을 그 화원에 모여 찍은 사진을 보니 문득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다.

잘 알려졌으나 샤오홍의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공간은 바로 집 뒤뜰에 있던 화원이다. 무엇보다 이 화원은 샤오홍에게 있어 동년의 가장 행복

1) 실제로는 식구들이 먹을 채소를 함께 기르던 텃밭 겸 화원으로 볼 수 있다.

한 순간을 추억하게 만드는 공간이었다. 여기에는 흐드러지게 핀 다양각색의 꽃들과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가여운 손녀딸을 특별히도 아꼈던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었다. 실제로 그녀의 할아버지는 어린 샤오홍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이에 샤오홍의 작품 곳곳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물씬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祖父死了的時候)」(1935)에서 샤오홍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늙고 야위어 갔던 할아버지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술에 의



사진(上): 샤오홍의 집 뒤뜰 화원

사진(下): 샤오홍의 가족사진(1947)

* 본고에서 사용한 사진은 '샤오홍 기념관' 및 '샤오홍 고거'에 전시된 자료를 필자가 직접 촬영한 것임.

지해 하염없이 울던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²⁾ 십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샤오홍은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함에 젖어 든다. 비록 아버지가 있다 하지만, 그녀의 친부는 언제나 “가난한 자, 늙은 자, 어린아이, 힘없는 여자를 억압하는” 공포스러운 대상일 뿐이었다.³⁾ 어쩌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샤오홍은 자신이 정말 ‘고아’가 되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자신을 한없이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혈육 할아버지와 그녀는 항상 뒤뜰 화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기에 샤오홍에게 있어 뒤뜰 화원은 철없고 순진한 어린 소녀의 마음을 보듬어주었던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샤오홍과 할아버지가 없는 가족사진을 보니, 이제는 정말 “늙은 주인은 죽고, 어린 주인”⁴⁾도 흠으로 돌아갔다

2) 샤오홍의 조부가 사망한 시기는 1929년 6월이다.

3) 蕭紅, 2013, 「祖父死了的時候」, 『蕭紅全集』(散文卷),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pp.61-62.

4) 이 표현은 샤오홍의 『후란허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적힌 「마지막 말(尾聲)」에 등장하는 구절의



송화강 범람으로 물에 잠긴
하얼빈 도심 모습(1932)

는 사실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내 시선을 사로잡았던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바로 1932년 송화강이 범람하여 물에 잠긴 하얼빈(道外 지역 일대)의 모습이었다. 이 사진을 보자마자 떠오른 사건은 정혼자 왕은자(汪恩甲)에게 버림을 받은 채 임신한 몸으로 여관방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샤오홍과 그녀의 구원자 샤오권

(蕭軍)의 만남이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동북(출신) 작가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로는 샤오홍과 샤오권을 들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이름이 항상 나란히 언급된다는 사실인데, 이는 마치 이들의 운명적인 만남과 인연을 상징하는 듯하다.⁵⁾ 샤오홍에게 있어 샤오권은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었다. 첫 아이를 떠나보낸 후, 샤오홍과 샤오권은 함께 고향을 떠나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등을 유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은 너무나도 고단했다. 경제적 빈곤은 샤오홍에게 계속해서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고, 군인 출신의 고집스럽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샤오권은 샤오홍이 그토록 원하던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샤오홍은 결국 생명의 은인이자 자신의 구원자였던 샤오권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마치 운명의 장난과도 같이 헤어짐을 결심했을 당시 샤오홍은 샤오권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다. 샤오권이 홍수로 고립된 여관방에서 샤오홍을 구출했을 당시, 자신을 버린 정혼자의 아이를 배고 있었던 샤오홍의 비극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곧 새로운 연인인 뚱무홍량(端木蕻良)을 만나게 되고, 둘은 1938년 정식으로 결혼식까지 올린다. 세간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

일부이다. 해당 부분에서 샤오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전 그 화원의 주인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늙은 주인은 죽었고, 어린 주인은 황무지로도 도망쳤다.” 국문 번역본 『후란허 이야기』(원종례 역, 2014)에서는 이 부분을 「작가의 말」이라는 부제와 함께 책 서문에 실어두었다.

5) 실제로 샤오홍과 샤오권을 함께 지칭할 때 ‘얼샤오(二蕭)’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면, 샤오홍과 샤오권의 친구였던 뚝무홍량은 오랫동안 샤오홍을 흠모해 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샤오권의 아이를 가진 채 그와 헤어졌을 때도, 그녀는 샤오홍을 자신의 아내로 기꺼이 받아주었다. 샤오홍이 뚝무홍량을 선택한 이유에 관해서도 그가 샤오권과는 달리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그러나 1940년 홍콩으로 이주한 이후, 둘의 관계 역시 결국에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만다. 그리고 샤오홍의 마지막 순간, 그녀의 곁을 지켰던 것은 오랜 벗이었던 뤼빈지(駱賓基)뿐이었다.⁶⁾

이 사진을 보며 샤오홍의 기구한 삶을 되돌아보니, 불현듯 한 명의 평범한 여자로서 그저 연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샤오홍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잃어갔다. 어머니, 할아버지, 샤오권, 뚝무홍량…… 그리고 마지막에는 낯선 도시 홍콩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샤오홍의 삶에 대해 작가 츠즈젠(遲子建)이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애정 생활에 있어 샤오홍은 행복하면서도 불행했다. 그녀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행운이었고, 실제로 그녀는 몇 차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이었다.”⁷⁾

1층 전시관에서 샤오홍의 어린 시절과 후란현의 옛 모습들을 둘러본 다음, 우리는 아래층에 마련된 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래층 전시관에는 주로 샤오홍이 유랑생활을 시작한 이후의 생활과 문학 창작 전반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으레 특정 작가의 기념관이 그러하듯, 이곳에서도 샤오홍의 문학에 대한 대부분의 해설은 작가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에 대한 칭찬과 함께, 여성작가로서 샤오홍이 보여주었던 민감한 감수성,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샤오홍의 『생사의 장(生死場)』을 들

6) 샤오홍과 뤼빈지의 관계에 대해서 후자는 연인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뤼빈지가 뚝무홍량이 떠난 홍콩에서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던 샤오홍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았고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두 사람이 특별한 우정을 유지했다는 점은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7) 遲子建, 2013, 「大家談·落紅蕭蕭為哪般」, 『蕭紅全集』(小說卷II),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p.280.

수 있다. 일찍이 좌익 작가이자 비평가였던 후평(胡風)은 이 작품을 솔로호프의 『개척되는 처녀지』와 비교하며 여기에는 “자연의 폭군과 두 다리를 가진 폭군의 위력 아래에서 부지런히도 꿈틀거리는”⁸⁾ 농민들의 생명력과 저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시각은 이후에도 『생사의 장』을 읽어내는 데 있어 가장 유효한 시각이자 방법으로 적용됐다. 실제로 샤오홍이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현재의 위상을 다지게 된 이유는 그녀가 일제의 억압에 몸부림치던 동북 민중의 저항 정신을 작품에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학의 사상성을 중요시하는 중국 학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1980년대 ‘문학사 다시쓰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도 샤오홍을 비롯한 대다수 동북 출신 작가의 문학은 오로지 저항 정신을 ‘찾고’, 그것을 ‘강조’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은 매우 유연하고 주관적이기에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 하지만 샤오홍이 『생사의 장』에서 그려낸 동북 민중의 부단한 몸부림은 사실상 더욱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다. 당시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몸부림은 분명 일제에 대한 저항의 제스처로도 읽어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몸부림은 어쩌면 소설의 제목과 같이 언제나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서 있는 인간의 본능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후란허 이야기』의 경우에도 기존의 대다수 연구는 해당 작품이 동북 지역의 봉건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게다가 샤오홍이 그려내는 삶과 죽음의 현장은 결코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아니었다. 『생사의 장』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히는 대목 중 하나는 동물이 새끼를 낳는 장면과 함께 고통에 몸부림치며 해산하는 여성의 모습을 동시에 묘사한 부분이다. 이들의 처절하고 애처롭기까지 한 생사의 과정은 생명에 대한 신성함과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흘리는 피와 고통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도 이어진다. 그렇기에 샤오홍의 작품에는 언제나 묘한 비장함이 묻어있다.

8) 胡風, 2013, 『『生死場』讀後記』, 『蕭紅全集』(小說卷 I),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p.300.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전시관을 돌아보던 중, 유독 낮이 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현대 중국의 대표적인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의 모형이었다. 해당 전시 공간에는 샤오홍, 샤오쥘, 그리고 루쉰의 특별한 인연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었다. 샤오홍의 일생과 작품에 관해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그녀와 루쉰의 인연이 작금의 중국 현대문학사 서사에서 샤오홍의 위치를 결정짓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만큼 루쉰은 샤오홍이 작가로 성장하는 데도, 그리고 그녀의 생활과 심리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샤오홍이 대표적인 동북(출신) 작가이자 항일문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는 데는 루쉰의 도움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934년 일제의 압력을 피해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 관내(關內)에 들어온 동북 출신의 젊은 떠돌이 청년 작가들이 중국 문단에 발붙일 수 있게 도와줬던 이가 바로 루쉰이었다. 루쉰은 이듬해 ‘노예사(奴隸社)’⁹⁾라는 문학단체를 조직해 젊은 청년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샤오홍의 대표작인 『생사의 장』이 노예사를 통해 출판된다. 루쉰은 특별히 『생사의 장』 서문(『生死場』·序)을 써주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해당 작품이 ‘북방 인민들의 삶에 대한 강인함과 죽음에 대한 투쟁’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서문 말미에서는 독자들에게 해당 작품을 읽을 것을 독려하며 “그녀(샤오홍을 지칭)야말로 그대들에게 강인함과 투쟁의 힘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¹⁰⁾ 이와 같은 루쉰의 전폭적인 지원에 샤오홍과 그녀의 연인이자 동지였던 샤오쥘은 관내로 이주한 후에도 문학 창작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

샤오홍에 대한 루쉰의 지원은 단순히 문학 창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어

9) ‘노예사’에서 활동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은 이후 『노예총서(奴隸叢書)』로 출판된다. 해당 총서에는 샤오홍의 『생사의 장』 외에도 예즈(葉紫)의 『풍작(豊收)』, 샤오쥘의 『팔월의 향촌(八月的鄉村)』이 있으며, 루쉰은 각 작품에 대한 서문을 써주었다.

10) 魯迅, 2005, 『蕭紅의 『生死場』序』, 『魯迅全集』(第6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p.423.

릴 적 친모를 잃은 후, 친부와 계모의 학대를 받고 자랐던 샤오홍에게 있어서 루쉰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샤오홍이 샤오훤과 불화를 겪으며 잠시 일본에 건너가 있었던 1936년 10월, 아버지처럼 따르던 루쉰이 오랜 지병으로 사망한다. 이 시기 샤오홍이 샤오훤에게 보냈던 서신에서는 당시 그녀의 비통한 심정이 잘 드러난다. “어젯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 신문을 보았는데 그 위에는 선명하게 루쉰 선생님의 사진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간의 모습이요. 내 울음소리가 그대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프네요.”¹¹⁾ 루쉰의 대한 샤오홍의 특별한 감정은 1939년 10월, 루쉰 사망 3주기를 맞아 샤오홍이 발표한 글 「루쉰 선생님을 추억하다(回憶魯迅先生)」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글 첫머리에서 샤오홍이 기억하는 루쉰의 생전 모습이었다. 샤오홍은 글의 첫머리에서 루쉰의 “경쾌한 웃음소리와 걸음걸이”를 가장 먼저 떠올렸고, 언젠가 하루는 자신이 입고 있던 붉은 상의와 체크무늬 치마, 신발에 관해 루쉰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¹²⁾ 이런 것들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만큼 샤오홍의 기억에는 아주 뚜렷한 인상을 남겨주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이런 평범한 일상은 샤오홍을 친딸처럼 아꼈던 루쉰의 따뜻한 마음과 루쉰을 존경하고 의지했을 샤오홍의 모습을 은연중에 보여준다. 그렇기에 루쉰의 죽음과 그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샤오홍의 슬픔은 그야말로 친부모를 잃는 슬픔과 같았을 것이다.

전시관 내부를 다 둘러본 이후 밖으로 나온 우리는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샤오홍 고거’로 향했다. 평일에 무더운 날씨 탓인지, 기념관을 비롯해 고거를 찾아온 이가 많지는 않았다. 샤오홍 탄생 75주년이던 1986년부터 문을 연 샤오홍 고거 내부의 시설물은 대부분이 보수작업을 거친 후였다. 대문 안에 들어서자, 우리를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하얀색 유리 재질로 만들어진 샤오홍의 동상이었다. 왼손에는 책을 쥐고, 오른손으로 턱을 받친 채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샤오홍

11) 蕭紅, 2013, 「致蕭軍(1936年 10月 24日)」, 『蕭紅全集』(詩歌戲劇書信卷),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p.139.

12) 蕭紅, 2013, 「回憶魯迅先生」, 『蕭紅全集』(散文卷),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pp.355-356.

의 모습은 소위 문학소녀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한 듯했다. 누군가가 얼마 전에 가져다 놓은 듯한 싱그런 꽃다발 하나가 그녀의 다리 곁에 놓여 있었다. 아마도 가족 혹은 샤오홍의 문학을 열렬히도 사랑하는 무명의 팬일지도 모르겠다. 동상을 뒤로 한 채 오른 편에 있는 방을 시작으로 우리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았다. 샤오홍이 태어났던 방이자 부모님이 거주했던 공간, 하인들이 거주했던 공간, 음식을 저장하던 공간, 가축을 기르던 공간, 그리고 여러 작가나 유명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남긴 서명이나 사진을 전시해 둔 공간, 샤오홍의 가족 계보를 전시해 둔 공간 등, 기존에 대가족이 살던 수많은 방은 이제 각각의 추억을 전시해 둔 전시실로 변모해 있었다. 기본적으로 사합원 형태의 가옥 구조에 북방 지역 특유의 전통 가옥 요소를 접목한 형태인 샤오홍의 고거는 당시 이 일대에 거주했던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는 것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곳에서 내가 가장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던 장소는 바로 샤오홍 문학 창작의 원천이기도 했던 ‘뒤뜰 화원’이었다. 서둘러 각 방을 구경한 후, 나는 거침없이 뒤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내 곧 ‘후화원(後花園)’이라는 글자가 적힌 비석이 눈에 들어왔다.

화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고 다소 황량한 분위기까지 풍기고 있었다. 아마도 봄에 피었던 화려한 꽃이 다 지고 푸르른 잎이 무성한 꽃나무만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이 화원이 이제는 영영 어린 주인의 손을 떠났다는 사실이 새삼 와닿았기에 그랬을지도.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내려앉은 덩굴을 묶어둔 통로를 지나 화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지금 어른의 눈에는 그저 아담한 뒤뜰로 보이겠지만, 그 시절 어린 샤오홍의 눈에 이 화원은 한없이 커다란 세계로 느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샤오홍의 작품 속에서 묘사된 화원의 아름다운 모습과 평온함은 어찌면 성인이 되어 고향을 떠난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집에 대한



‘후화원’ 비석

그리움과 할아버지와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했던 샤오홍의 바람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비록 내가 상상하던 화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약 한 세기 전 이곳에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을 어린 샤오홍을 상상하니 그동안 책으로만 만나던 샤오홍과의 거리가 한 뼘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 곳곳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면 좋았겠지만, 예정된 다음 일정이 있기에 서둘러 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샤오홍 고거를 나오는 길에 보니 집 안 한쪽 벽면에는 수많은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시간이 여의찮아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설명을 찾아보니 이것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후란현의 역사를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현재는 대다수가 마모되어 글자가 지워져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어려웠다. 그러나 수많은 비석이 한데 모여 있는, 그것도 샤오홍 고거에 있는 모습을 보니 문득 중국인들에게 후란현과 샤오홍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샤오홍 고거를 다 둘러보고 나온 후에는 아쉬운 마음에 기념관 앞에 서서 사진 몇 장을 더 찍었다. 그리고는 이내 다음 일정을 위해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하얼빈 시내를 향해 차를 돌리던 길에 우연히 샤오홍 초등학교(蕭紅小學)라는 글자가 적힌 건물이 눈에 띄었다. 곧바로 전날 하얼빈 시내에서 본 샤오홍 중학교(蕭紅初中) 건물이 떠올랐다. 그리고 보니 후란현도, 하얼빈도 모두 샤오홍이라는 작가를 참 열심히도 기억하는 듯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샤오홍 기념관과 샤오홍 고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샤오홍 고거는 이제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문화유적지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이 집과 화원의 작은 주인이었던 샤오홍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현대 중국의 시작점으로도 평가되는 신해혁명이 일어난 1911년, 후란현에서 태어난 샤오홍은 1942년 홍콩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다. 31살의 젊은 나이에 폐병을 앓다 홍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샤오홍. 그녀가 사망한 지 80여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녀의 작품을 읽고, 공감하고, 그녀를 기억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수성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샤오홍의 작품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정리와 출판이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도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생사의 장』, 『후란허 이야기』 등이 번역 출판된 상황이다. 불과 10년 전이었던 2014년에는 탕웨이(湯唯)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던 영화 <황금시대(黃金時代)>가 개봉했는데, 여기에서 탕웨이가 열연한 인물이 바로 샤오홍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샤오홍과 그녀의 문학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이는 그 원인을 인간 샤오홍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문학의 대가인 루쉰을 비롯해 샤오쥘, 뤄무홍량, 뤄빈지라는 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샤오홍의 인생 그리고 문학 창작을 읽어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문득 창작 초기 샤오홍이 즐겨 썼던 필명 ‘차오인(悄吟: 조용히 신음하다)’이 떠올랐다. 아울러 다시 한번 샤오홍의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후란현을 떠나 하얼빈, 칭다오, 상하이 그리고 홍콩으로 이어졌던 샤오홍의 발자취를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철없던 시절, 뜬금 없이 문학 공부를 하겠다고 훌쩍 중국 유학을 떠났던 때의 낭만이 그래도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듯해서 반갑기도 하고, 수줍기도 한 순간이었다.